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개막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6월 2일~11월 25일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6월 2일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하 브랜드공연) 개막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고 밝혔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11년째 브랜드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 레퍼토리인 '몽연-서동의 꽃'을 선보인다.

'몽연-서동의 꽃'은 삼국시대 백제 서동(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기반으로 동서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전북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올해 작품은 한국무용 기반의 '판소리댄스컬'인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안무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판타지적인 요소의 이야기 구성의 연장선이 아닌, 좀 더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보완했다.

또한 지난해 서동과 선화의 감정이입이 아쉽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주제가 '서동요'인 만큼 애틋하고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를 표현했다.

몽연-서동의 꽃 포스터

제작진은 총연출 및 안무가인 최석열을 주축으로 젊은 작창자인 송봉금(창본/작창), 김태근(음악감독/작·편곡), 오태훈(무대미술), 김민재(조명디자인), 김장연(영상디자인), 최희정(의상디자인), 이소정(소품디자인), 박효정(분장디자인), 김동훈(안무감독/조연출), 김진희(연기지도), 김창빈(무대감독) 등이 참여했다.

특히 브랜드공연 출연 배우는 공개오디션(판소리와 무용 분야)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배우들로 21명을 선발했으며,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얼굴이 주인공을 맡아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는 6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수~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지난 5월 29일부터 '티켓링크'와 '네이버티켓'에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브랜드공연은 올해 객석을 정비해 180석을 오픈했으며, 티켓가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고, 전북도민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올해 작품시연회에 참여해 배우들의 땀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전북 대표 공연으로서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 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지식살롱 개최

오늘 문화관광마케팅 전문가 이가은 대표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31일 '전북지식살롱' 제 6회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문화관광마케팅 전문가 이가은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가은 대표는 해외 공연과 인바운드 관광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화권·동남아 공연관광 시장의 대표 세일즈맨으로 활약했다.

현재 지역 주민과의 동반 산행의 유니크함에 반해 기획한 로컬 하이킹 투어, 뒤풀이에서 만난 외국인의 막걸리 사랑에 취해, 시작한 양조장 투어 등 전라도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이번 강연은 '한국 문화를 관광으로 잇는 신명나는 창업기'라는 주제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관광마케터로서 진행했던 일과 현장에서 경험한 재밌는 에피소드 △창업 실패로 축적한 시행착오의 순기능!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일은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한 문화 트랜드! 전북 지역의 문화, 관광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문화관광 기획 및 창업에 관심있는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및 https://naver.me/5E3KbNi0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기후위기·지구환경 예술로 알린다

전주문화재단,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술로GREEN전주' 참여 예술인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2023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술로GREEN전주'에 참여할 예술인(단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구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예술활동으로 알리고자 고민하는 사업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와 지구환경을 주제로 예술 창작활동을 진행할 전주 연고 공연·다원 분야 예술인(단체)을 1팀 선정하여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자(팀)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연·다원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지역에서 실연한다.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예술로GREEN전주'는 공연·다원 예술 창작뿐 아니라, 지구환경 위기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와 예술활동 전반의 녹색화에 관한 고민을 풀어내는 워크숍, 거버넌스 회의 그리고 포럼 등이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한 오는 8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전시인 '이퀼리브리엄-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展을 개최한다.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주제로 커진위엔(대만), 유지수, 김설아, 물야나(인도네시아), 장전프로젝트(장준영&전지윤)와 소보람, 정희정의 창작품을 선보인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시대에서 예술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기후위기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과 예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미래전략팀(070-7711-3747)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단체 및 개별접수를 통해 선착순 300명 내외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단체접수는 소속 학교 담당교사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또 개별접수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희망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림을 통해 표현력,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불타는 트롯맨' 열정무대 전주서 펼쳐진다

'불타는 트롯맨'의 뜨거운 서바이벌 현장의 열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진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전주'에 손태진을 비롯해 끝까지 우승경쟁을 벌였던 TOP 13의 열정무대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

6월 3~4일 오후 6시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불타는 트롯맨 전주공연은 TOP 13을 소개하는 VCR 영상을 시작으로 TOP 7 트롯맨들(손태진-신성-민수현-김중연-박민수-공훈-에녹)이 함께 부르는 불타는 트롯맨 주제가 '앗! 뜨거'로 오프닝을 장식할 예정이다.

150분 동안 이어지는 공연은 트롯맨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부르고,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 방송에서 채 보여주지 못한 각자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디너쇼 미션에서 1·2등을 차지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트롯파이브'와 '녹이는 민수네'와 오디션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극찬 받았던 듀엣 베스트 곡들을 다시 듣는 무대도 만날 수 있다.

공훈, 손태진, 전종혁, 남승민, 박현호로 이뤄진 '트롯파이브'는 방송에서 선보였던 메들리 4곡(당신이 원하신다면, Sweet Dreams, Take on me, 빙글빙글)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에녹, 김정민, 박민수, 최윤하로 구성된 '녹이는 민수네'도 매혹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정열적인 메들리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장은성 기자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박병대 작가 첫 개인전 '흐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박병대 작가의 첫 개인전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작가는 어떠한 힘으로 통제되거나 막힘이 없이 한결같이 자유로이 흐르는 물결을 보면서 한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흐름의 현상을 사람의 삶에 비유해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는 한국미협, 전주미협, 환경미협, 공무원미협 회원과 갑오동학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그림교실 강사, 인후신협 취미미술 강사, 우아문화센터 유아 및 수채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는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도내 경력단절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장은성 기자